

2020. 9. 19 (토)

종묘광장 **종 묘**

김 흥 렬

Contents

1부. 종묘광장과 종삼

1. 종묘광장 재조성 사업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3. 종로3가?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적)도로 보면 종묘
2. 망묘루? 관리사무소?
3. 공민왕신당의 정체는?
4. 종묘 지당은 천원지방?



1부. 종묘광장과 종삼

1. 종묘광장 재조성 사업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3. 종로3가?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1부. 종묘광장과 종삼

1. 종묘광장 재조성 사업



1부. 종묘광장과 종삼

1. 종묘광장 재조성 사업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사적 제125호) 정문 앞 종묘광장에 음주기무 등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종묘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묘광장 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일대
- 사업규모 : 34,600㎡ (도시계획시설 : 광장)
- 사업기간 : 2007 ~ 2016.12(현재 공정률 60%)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시비 2,100)
- 사업내용
 - 원형복원
 - 어도(御道) 및 어구(御溝)(L=129m, B=21.8m)
 - 종묘전교(L=7.2m, B=9.9m)
 - 제생동천(L=40.1m, B=3m, D=1.3m)
 - 하마비
 - 양부일구
 - 우수관로 정비
 - BOX수로관(1.5×1.5) 해체 L=133m
 - PC BOX(1.8×1.2) 신설 L=278.6m
 - 신성림 조성
 - 한옥관리동 신축

□ 2015년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어도 및 어구 구간 마무리(마사토 포장 등) 공사
 - 제생동천 및 전교 복원
 - 동측 녹지공간 일부 정비
 - 한옥관리동 설계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400, 시비 600)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종묘광장 정비, 시설비(감리비)
 - 집행계획
 - 어도 및 어구 구간 마무리 : 260백만원
 - 제생동천 및 전교복원 : 700백만원
 - 동측 녹지공간 일부 정비 : 600백만원
 - 전기공사 : 260백만원
 - 한옥 관리동 설계 : 50백만원
 - 감리 및 폐기물 : 130백만원
 - 추진일정
 - 2월 : 사업비 교부
 - 5월 : 어도 및 어구 구간 공사 완료, 동측 녹지공간 철거
 - 6월 : 한옥관리동 설계
 - 7월 : 제생동천 및 전교 복원, 동측 녹지공간 수목 이식 및 식재
 - 사업시행 : 종로구로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비 집행
- ※ 2016년도 계획
- ▶ 사업내용 : 동측 녹지공간 정비 완료, 한옥관리동 신축 등
 - ▶ 소요예산 : 1,838백만원

1부. 중요광장과 종삼

1. 중요광장 재조성 사업 (참조)

□ 추진현황

- 2007년 : 국악정 철거
- 2008년 : 노점상 정비, 발굴조사
- 2009년 : 발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영역착수
- 2010년 : 발굴조사 완료, 염상섭상 이전
- 2011년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및 설계심의(문화재청)
- 2012년 11월 : 설계도서 심의 및 승인(문화재청), 계약심사(서울시)
- 2012년 : 건축, 토목분야 공사계약(12월)
- 2013년 : 조경분야 공사계약(5월), 어구부분 발굴조사(8월)
- 2014년 : 어도구간 정밀발굴 및 조경구간 시굴조사 완료(9월)
매설 자장물 이설, 우수관로 설치(10월)
석재반입 및 가공, 서측 녹지공간 수목식재완료(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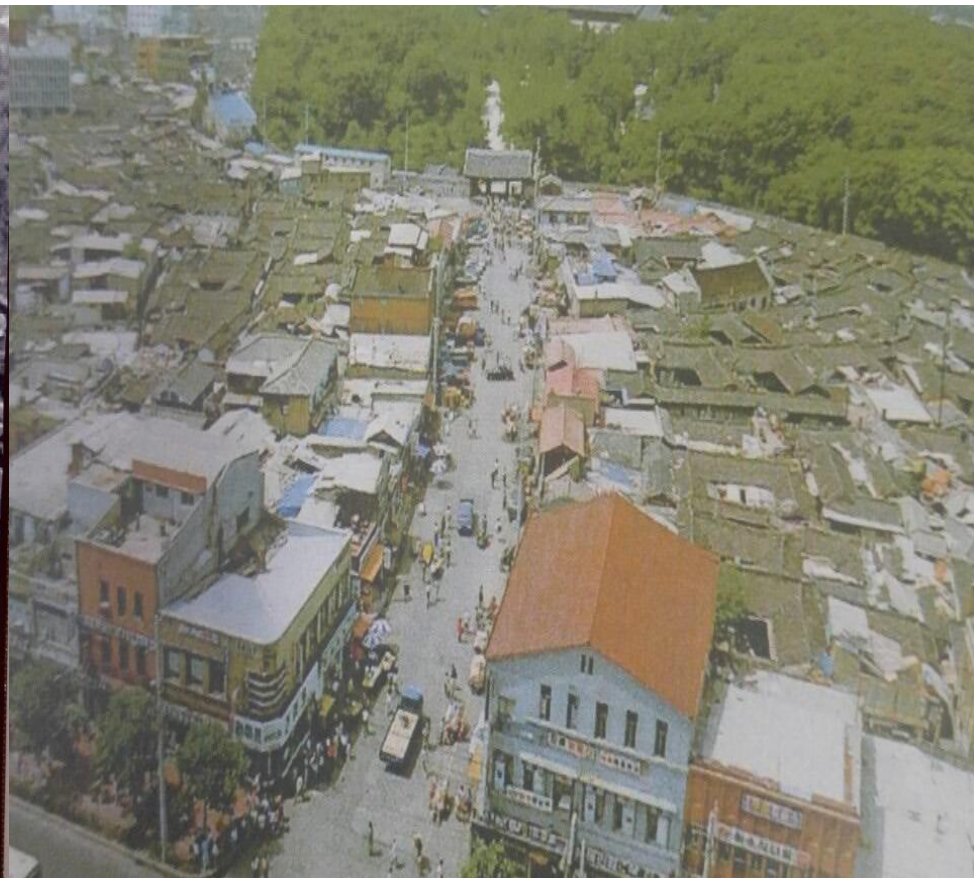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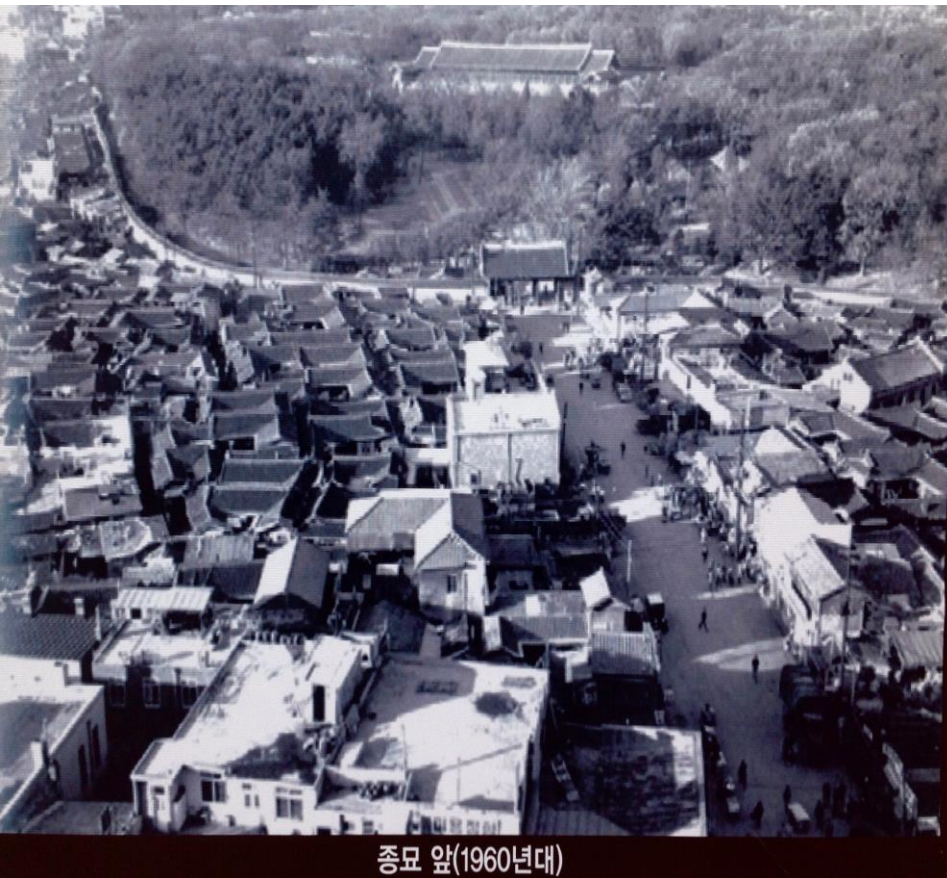
■ 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계	7,000	1,620	2,000	1,000	2,000	1,838	
건축	1,860	1,620	-	200	960		어도,어구,어정,종묘전교, 제생동천 등 원형복원
토 목			40	-	-		우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
조 경	3,051		1,432		600	1,000	신성림 조성 및 산책로 포장 등
전기·통신	322		177		260		공원등,CCTV,방송설비 등
설 계 비	50		-		50		한옥관리동 설계
감 리 비	70		70		80		건축, 조경
발굴조사비	665		265	400	0		어도부분 발굴조사
폐기물처리비	50		16		50		건축·토목, 조경
이설비 (조형물)	600		-	400	0		화합과전진등 조형물 이설 ※상수도관로 및 통신관로 이설
한옥관리동	332				0	838	한옥관리동 신축
예산반납	1,630		1,518	112			○ 반납 ·12년 사고이월 1,458,000,000원 ·13년 집행잔액 59,852,250원 ○ 반납예정 ·13년 사고이월 112,436,7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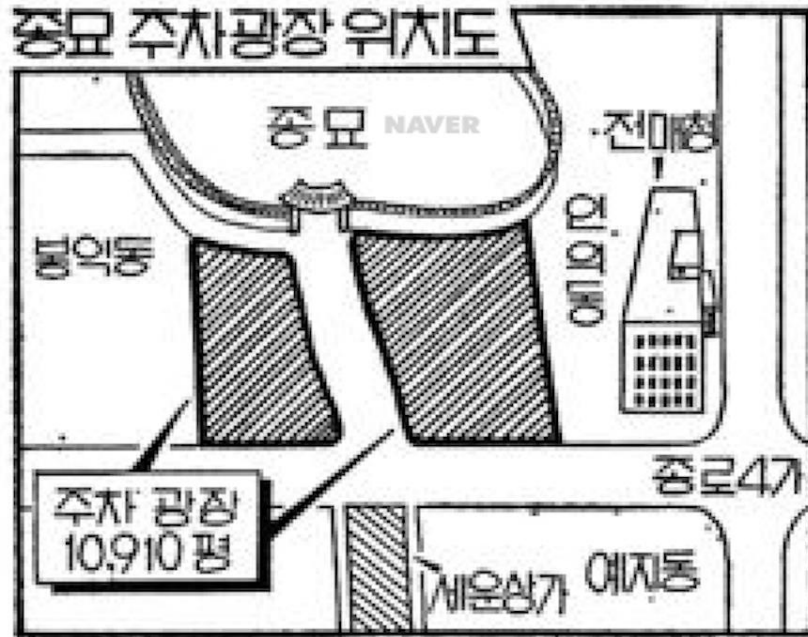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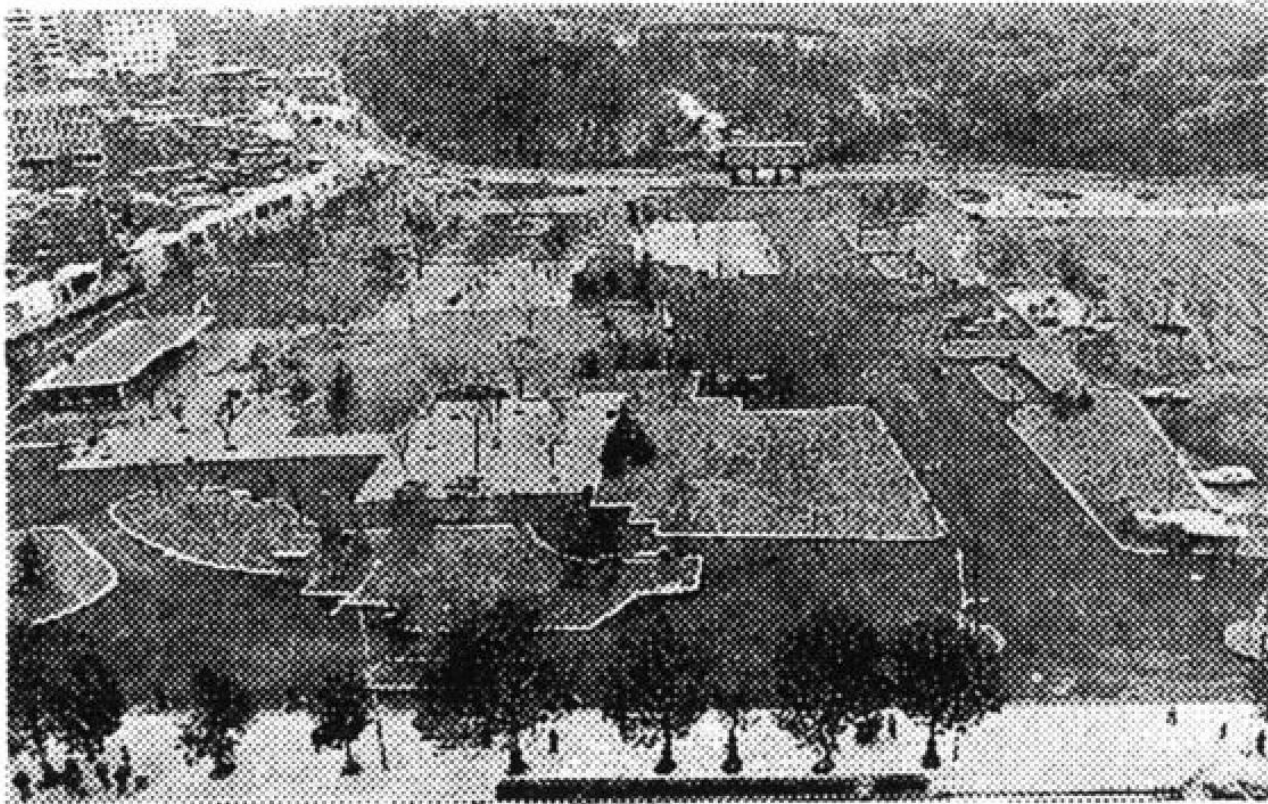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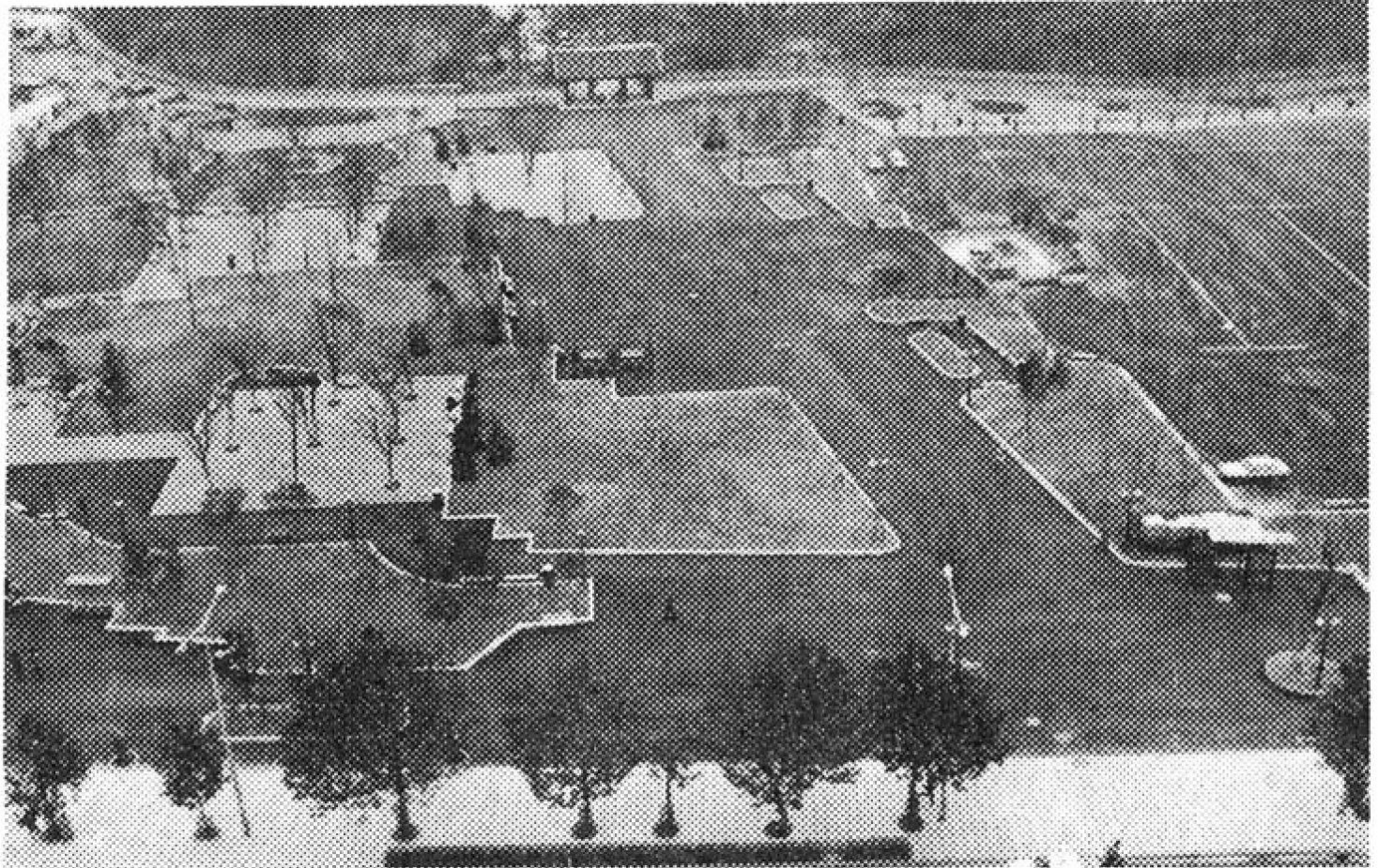


서울 종묘앞公園 개장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새名所 宗廟앞 시민광장. 윤락가의 대명사로 불리던 종묘앞「鍾三」일대가 휴식공간과 주차장을 갖춘 시민광장으로 조성돼 16일 문을열었다. 【사진 禹鍾元기자】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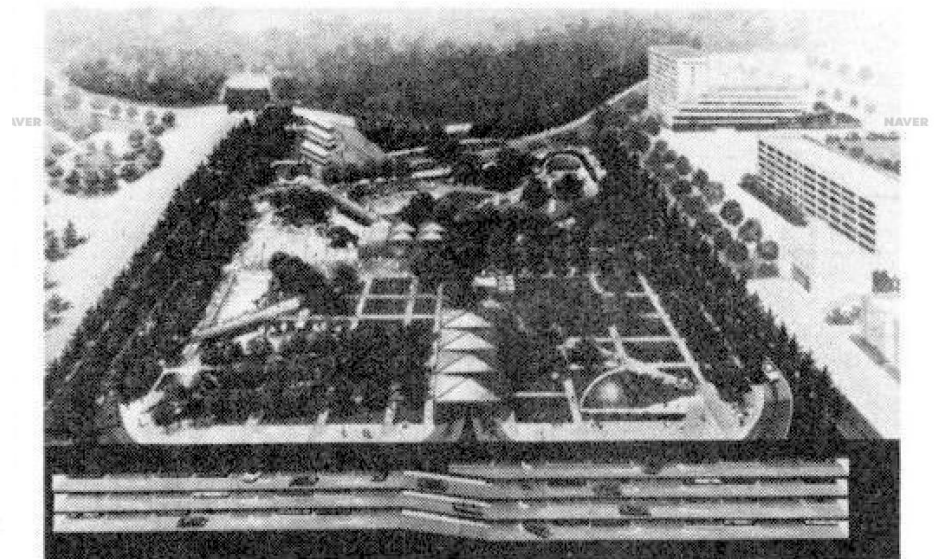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宗廟앞 御井이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三星綜合建設이 오는 91년 8월 완공예정인 서울종묘 지하주차장 조감도. 지상은 공원으로 바뀌며 지하에는 1천 4백4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4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노태우씨 구속과 5·18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변재성 기자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서울 종로구는 훈정동 90 종묘앞 시민광장에 60~80평 규모의전통한옥형 놀이마당을 설치해국악공연이 펼쳐지는 공간으로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또 비원~국악로~순라길~종묘~탑골공원~인사동을 도보 관광지로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종묘 어정

가뭄에도 수위 일정...임금이 마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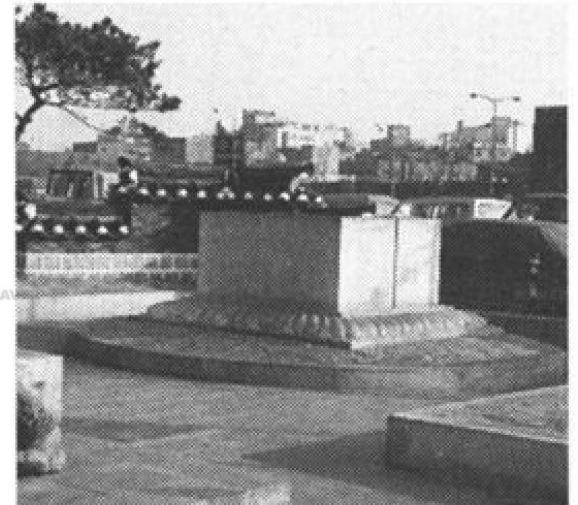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공원 안에 위치한 어정은 지난 8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56호로 지정됐다.

석축방법과 마모된 상태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금이 종묘 왕래 때 이 물을 마셨다고 해 '어수우물' 또는 '어정'이라 전한다.

깊이 약 8m, 지름 1.5m의 원형인데, 원래는 정·장방형의 화강암으로 바른 층

쌓기를 하여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1~2단이 더 있었으나, 일제가 콘크리트 우물통으로 바꾸면서 한때 없어졌다. 서울시가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상단에 판석을 4각으로 세워 복원했다.

상수도가 설치되기 시작한 1906년까지 4대문 안의 일반 백성들은 우물을 마셨는데 모두 없어지고 어정이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우물이다.



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어정의 수위가 항상 일정할 정도로 영험이 있다고 해 주민들이 이곳에서 용왕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배경록 기자

1부. 종묘광장과 종삼

2. 불법밀집지역에서 광장까지



1부. 종묘광장과 종삼

3. 종로3가? 종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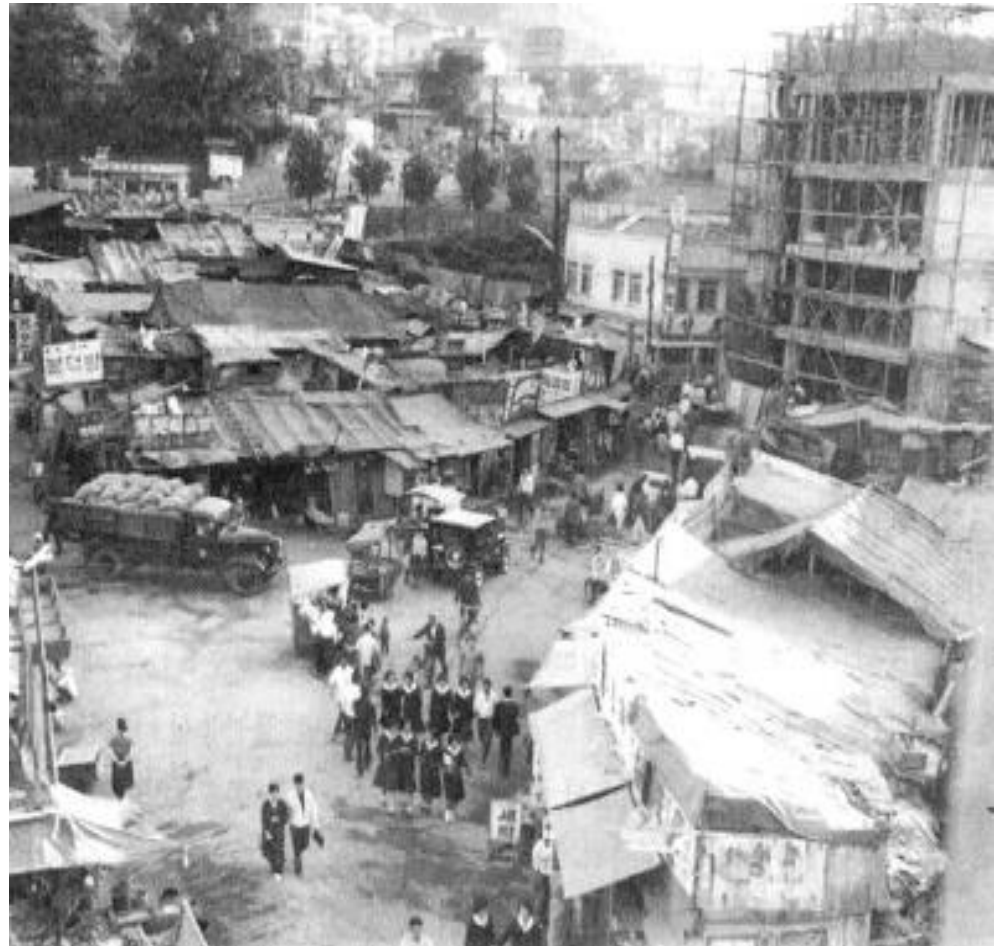


1부. 종묘광장과 종삼

3. 종로3가? 종삼!



지난날 종삼이 있었던 종로3가
뒷골목(1998년 촬영)



1부. 종묘광장과 종삼

3. 종로3가? 종삼!

종묘와 사창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외람스럽게도 한국전쟁 이후 20년 동안 종묘 앞에는 '종삼'(鍾三)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집창촌이 기생하고 있었다. 1966년 그때로 되돌아가 보자. 종묘 앞에서 대한극장에 이르는 너비 50m, 길이 1km에 무려 4만 9586㎡(약 1만 5000평)의 공지에 2200여동의 무허가 판잣집과 집창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판잣집이라기보다 천막집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세운상가가 들어선 바로 그 자리다.

1950년 초 종묘 앞에 국회의사당을 짓는 계획이 문화재관리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이 조선왕조의 정신적 고향인 종묘 앞에 국회의사당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남산 조선신궁 자리에 건립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1968년 종삼을 소탕하려는 '나비 작전'이 펼쳐졌을 때 종삼의 범위는 종로3가와 4가, 단성사 뒷골목, 종묘 앞 일대를 중심으로 낙원동, 봉익동, 훈정동, 와룡동, 묘동, 권농동, 원남동은 물론이고 길 건너 남쪽의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까지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다. 당시 서울시가 현재의 낙원상가부터 종로5가까지 조사해 보니 윤락여성 1368명, 포주 11명, 바람잡이 17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낙원동 등 한옥지구(고급), 종묘 앞 등 무허가 건물지대(하급), 종묘 건너편 소개도로 터(최하급) 등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을 현장 답사하던 김현옥 시장과 증구청장 일행에게 윤락여성이 접근해 유객 행위를 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1부. 종묘광장과 종삼

3. 종로3가? 종삼!

1968년 9월26일 김시장은 당시 종로에 짓고 있던 세운상가 건설현장을 수행원과 함께 찾아갔다. 그런데 예지동 뒷골목으로 가는 김시장을 댐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붙잡는다. 그리고는 "아저씨 놀다가세요."라고 호객을 했다. 종삼의 매춘여성이었던 것이다. 불도저 김시장은 당시 강한 충격에 크게 분노했었던 것 같다. 그는 그자리에서 종로구청으로 들어가 관계자를 소집했다. 그리고 종삼 소탕작전을 펼치라고 지시했다. 이름도 정했다. 바로 '나비작전'

작전의 전략은 이랬다. 10월1일부터 이 일대를 출입하는 자를 적발해 명단을 공개한다. 포주에 대한 채무관계를 일체 무료화하고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구속한다. 전략의 핵심은 매춘여성보다도 매춘하러 오는 이들을 막는 것이었다.

이튿날인 9월27일부터 한전 직원을 총동원해 종삼 매춘 골목 입구에 밝은 전구를 수도 없이 달았다. 놀러오는 남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손님이 골목에 들어서면 숨어있던 공무원과 경찰관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름과 주소를 물어댔다. 이런 고난을 뚫고 매춘을 하러 올 이들이 있을리 만무한 법. 손님들은 바로 발길을 끊었다. 애초 종삼을 소탕하는 데에는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포주들의 힘과 숫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비작전은 단 1주일! 만에 종결됐다. 포주와 여성들은 전국으로 흩어졌고, 종삼이란 단어는 서울시에서 사라졌다. 1968년 1주일 동안의 일이다. 사창가 단속사에 길이 남을 특공작전으로 꼽힌다. 물론 여기서 밀려난 매춘여성들이 미아리며 천호동에 들어가서 새로운 흥등가를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1부. 종묘광장과 종삼

3. 종로3가? 종삼!

세운상가 터는 일제가 미군공습 때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개공지(疏開空地)로 비워 놓은 공터였다. 일제는 서울시내 19곳에 이르는 소개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건물 철거작업을 시행했는데 그때의 유산이다. 종묘 앞~필동, 서울역~회현동, 필동~신당동, 서울역~충정로, 서울역~갈월동, 원남동~동대문~광희문 등이 주요 소개도로였다. 덕분에 해방 후 퇴계로, 의주로, 율곡로, 청파로 같은 큰길을 쉽게 낼 수 있었다.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1966년 6월 20일 “종묘 앞에서 대한극장 앞 사이의 무허가건물 일체를 철거 정리하고 도로용지 일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산뜻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해 허락을 얻었다. 공병장교(예비역 준장) 출신답게 전격적인 철거 작전을 실시했다.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인현동 지역의 무허가 상가주택 1100채가 자진 철거하거나 강제 철거됐다. 다른 지역의 철거 대상 무허가 건물도 1000채를 넘었다. 무려 2200채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사상 최대의 작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만인 1966년 8월 말 도로용지를 제외한 너비 50m, 길이 893m, 총면적 4만 4737m²(약 1만 3533평)의 부지가 조성됐다.

기공식날 김 시장은 세운상가라는 휘호를 남겼다. ‘세운’(世運)이라는 작명은 ‘세계의 기운이 모인다’는 뜻이었다. 1970~1980년대 세운상가는 장사동·입정동·산림동의 기계공구상가, 부품상가와 함께 국내 전자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한국의 실리콘밸리였다. 최초의 개인용 PC를 개발한 삼보컴퓨터와 ‘아래아 한글’의 한글과 컴퓨터 등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음향기기 관련 기기를 사거나 수리하려면 세운상가로 가야 했다.

1부. 종묘광장과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외대문



1부. 종묘광장과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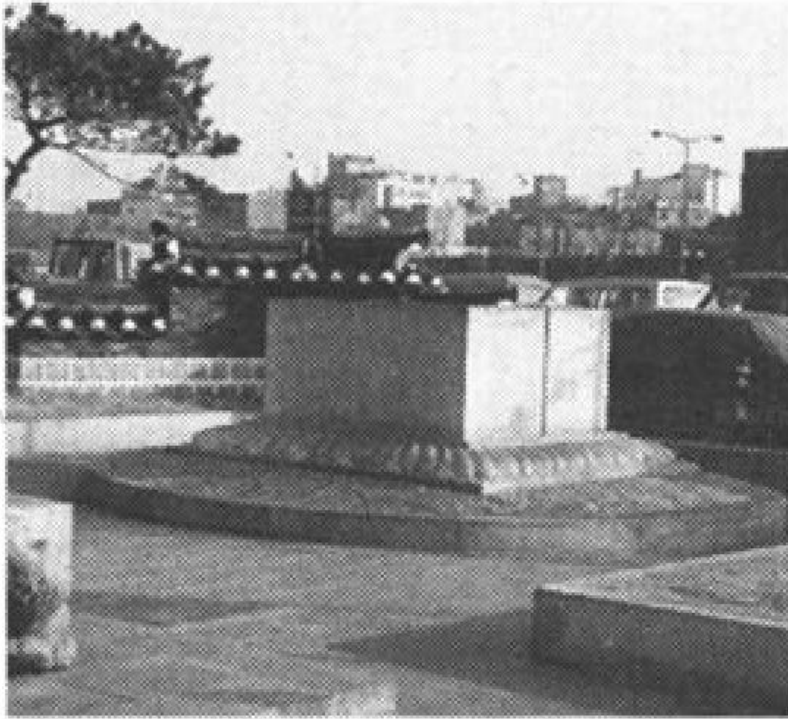
진입로



1부. 종묘광장과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어 정



1부. 종묘광장과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종묘전교



1부. 종묘광장과 종삼

4. 종묘광장 점경물

하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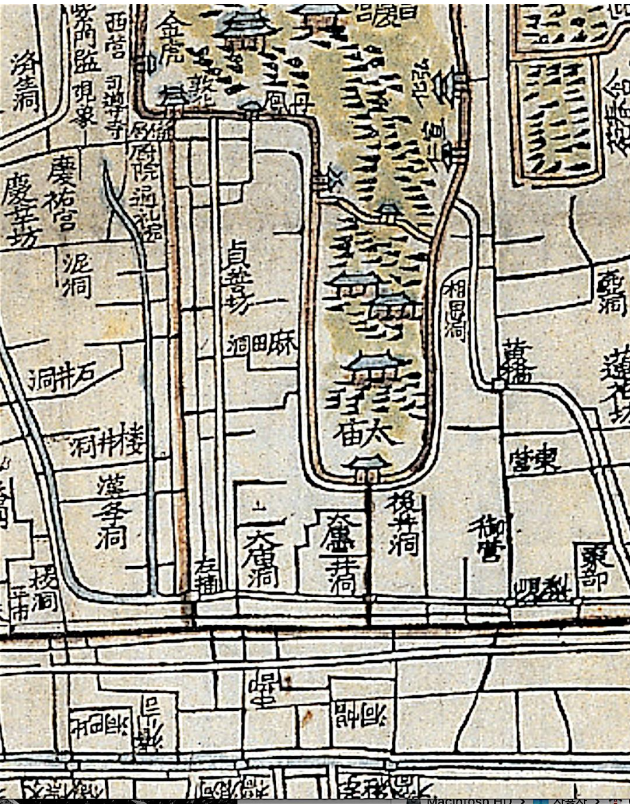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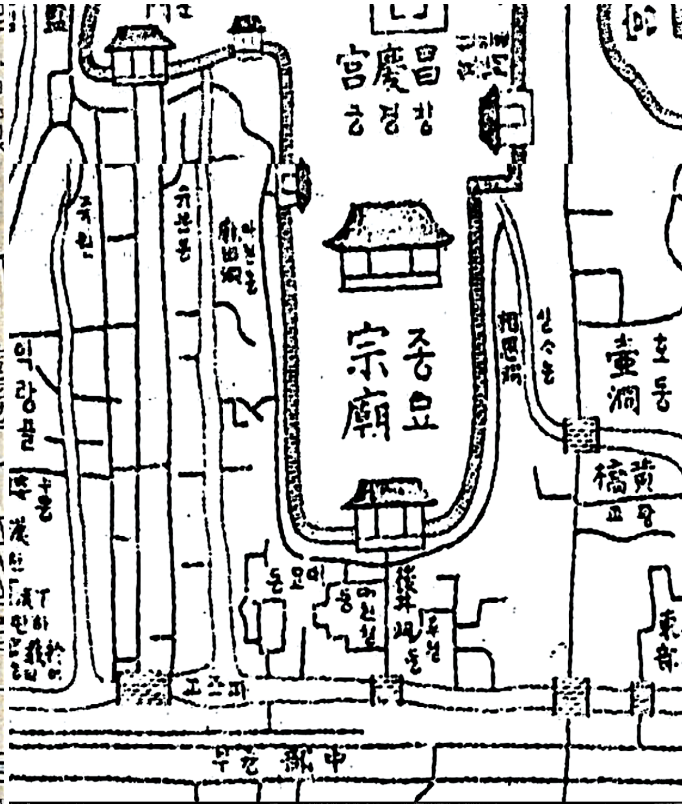
1. 지(적)도로 보면 종묘
2. 망묘루? 관리사무소?
3. 공민왕신당의 정체는?
4. 종묘 지당은 천원지방?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수선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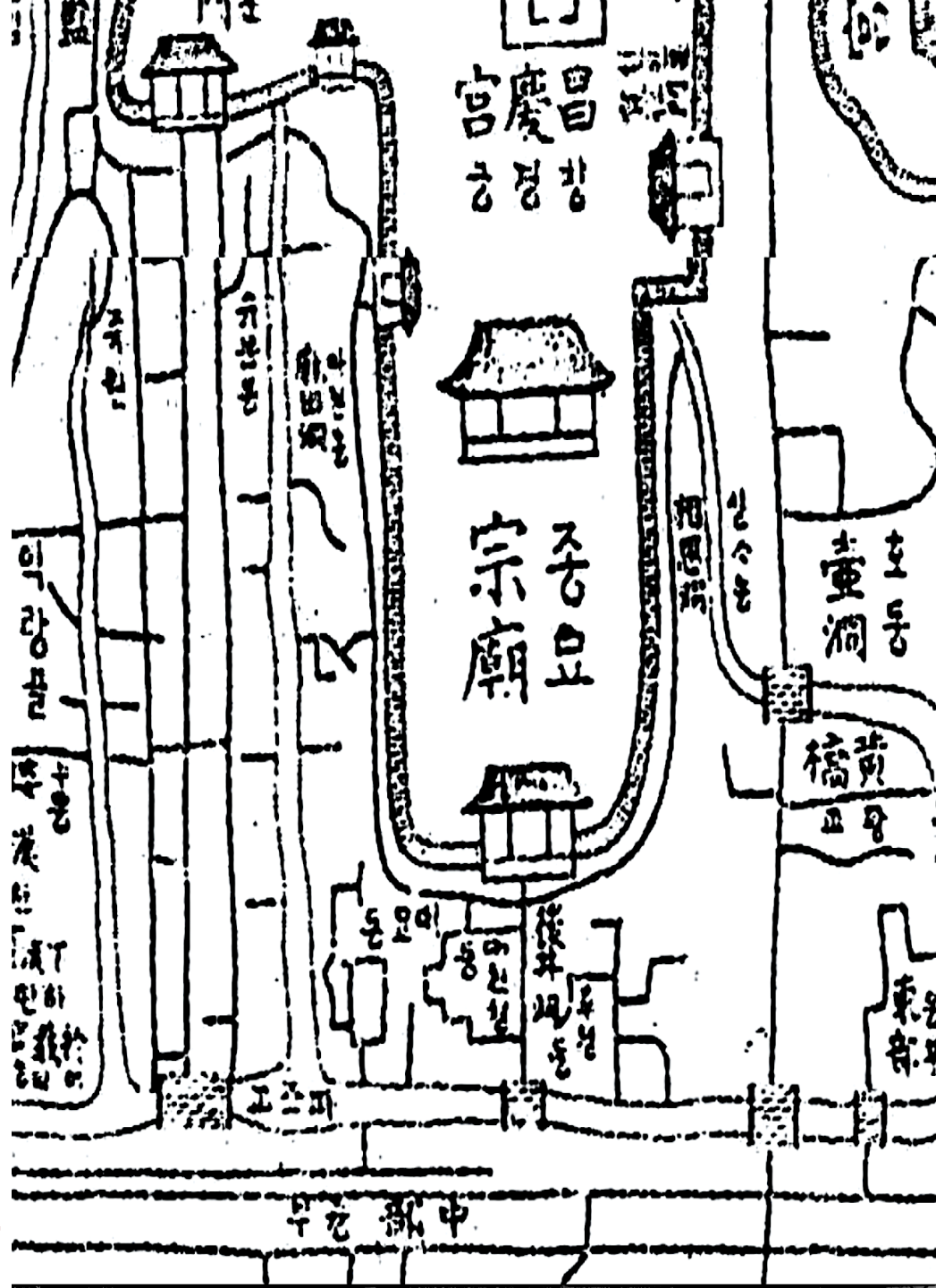
한성부지도



한양지도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한성부지도

2부. 대한민국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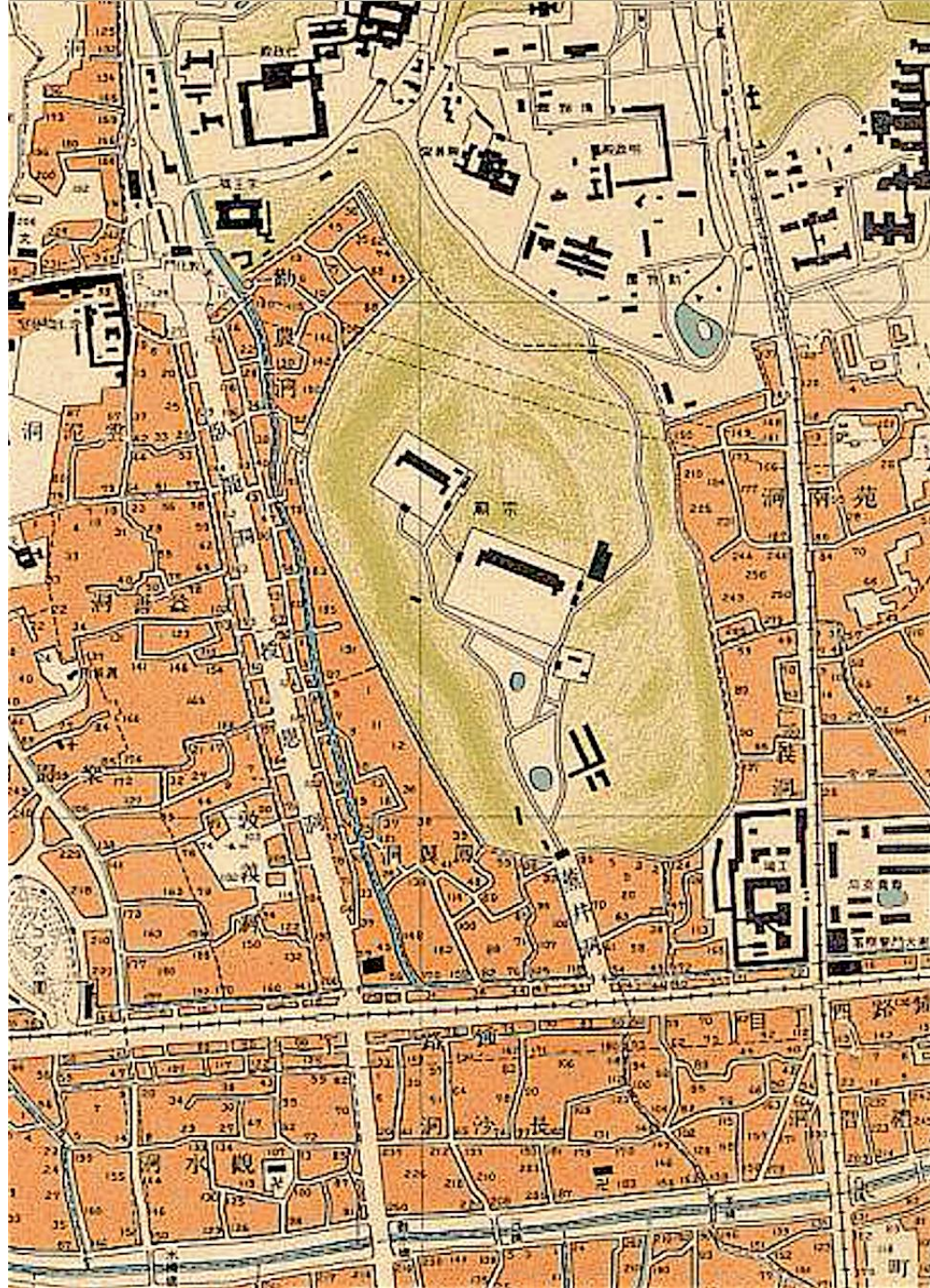
1. 지도로 보는 종묘



한양지도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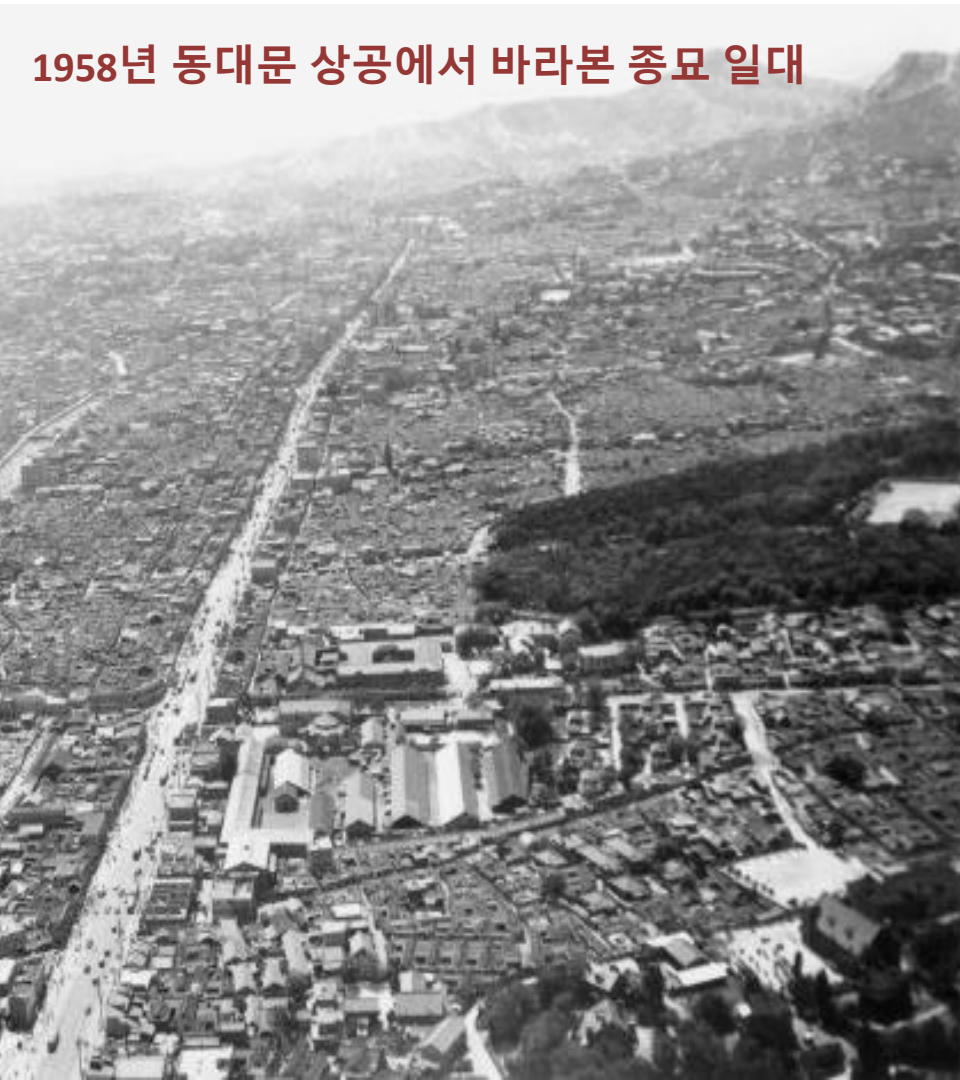


경서시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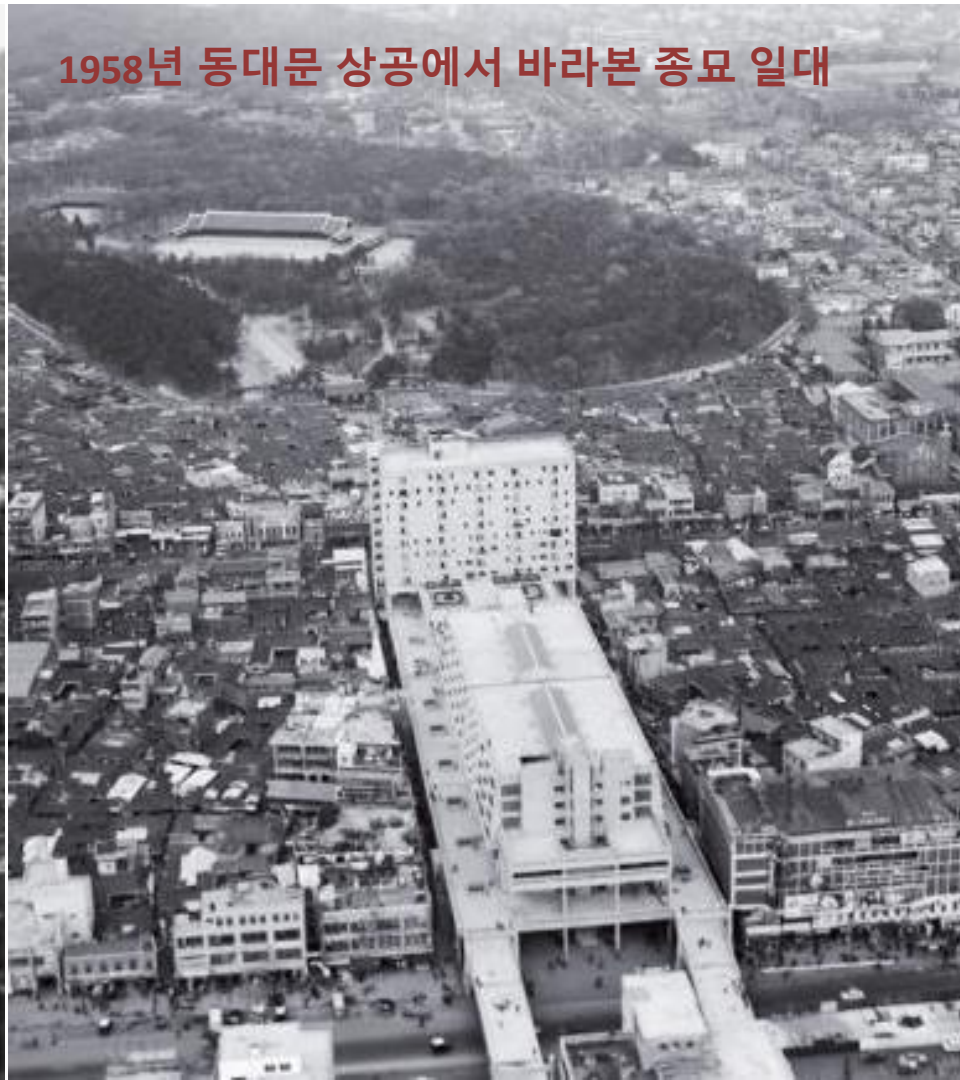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1958년 동대문 상공에서 바라본 종묘 일대



1958년 동대문 상공에서 바라본 종묘 일대



2부. 대한민국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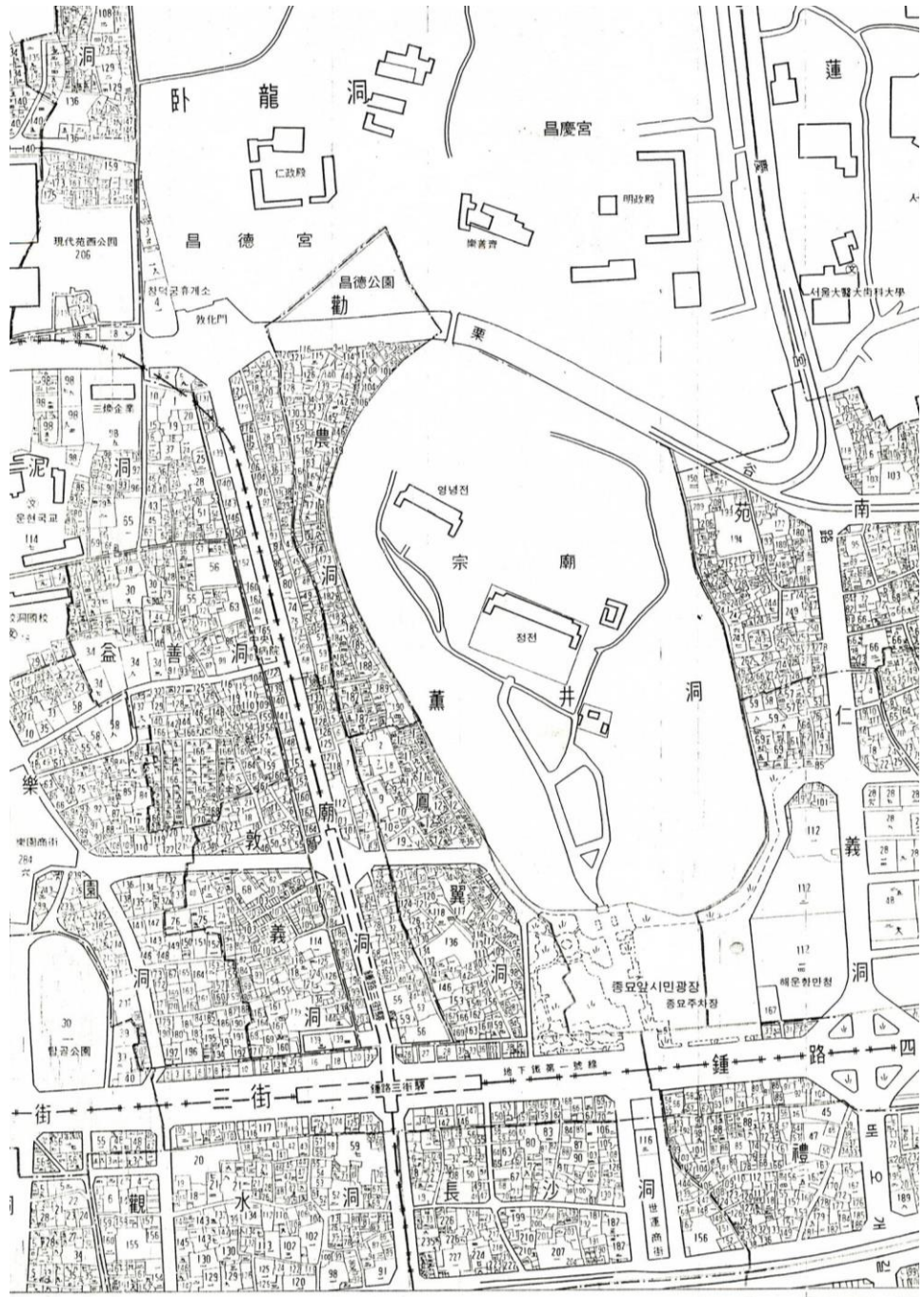
1. 지도로 보는 종묘

1970년대 초 세운상가 설립전 항공사진 : 김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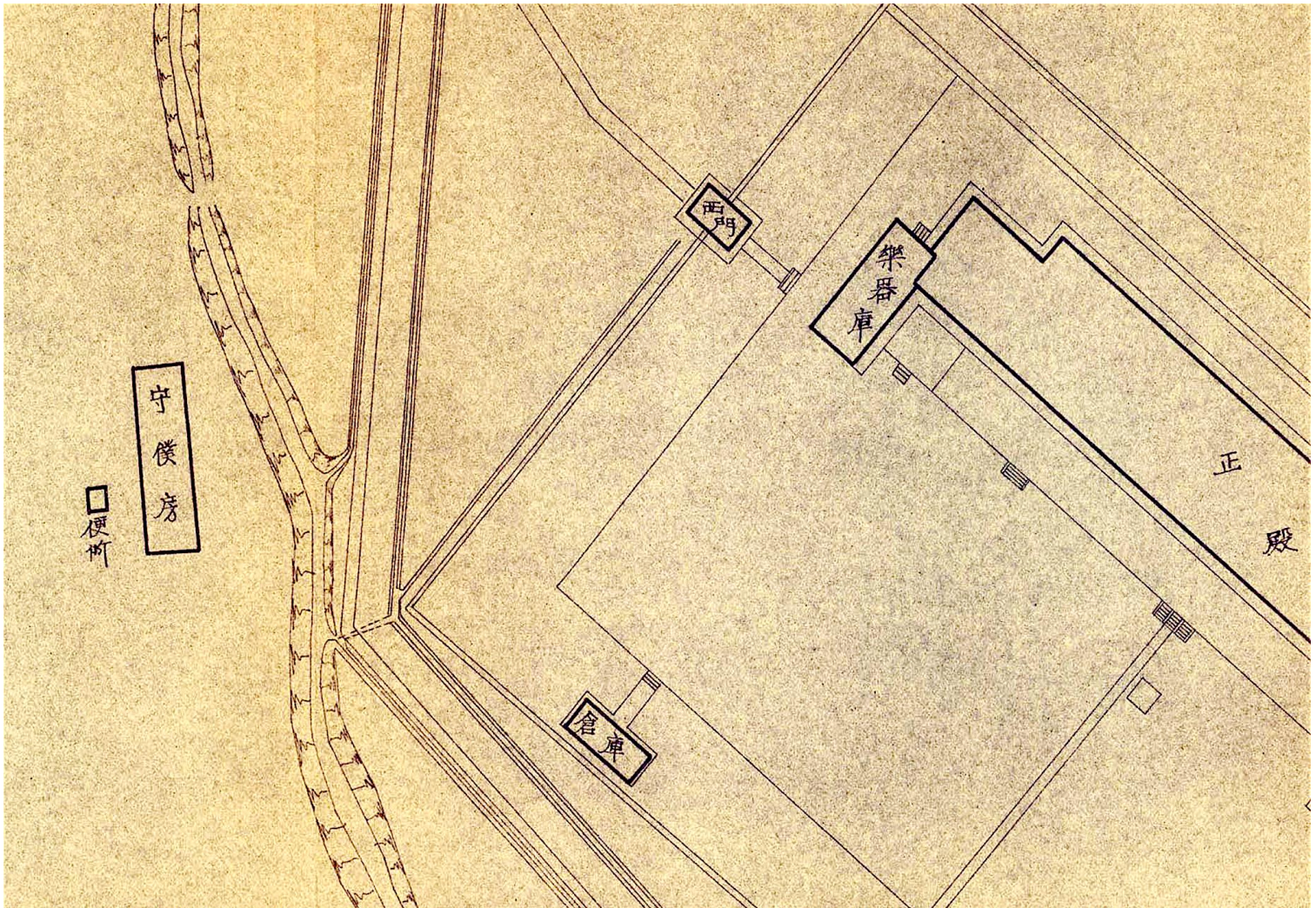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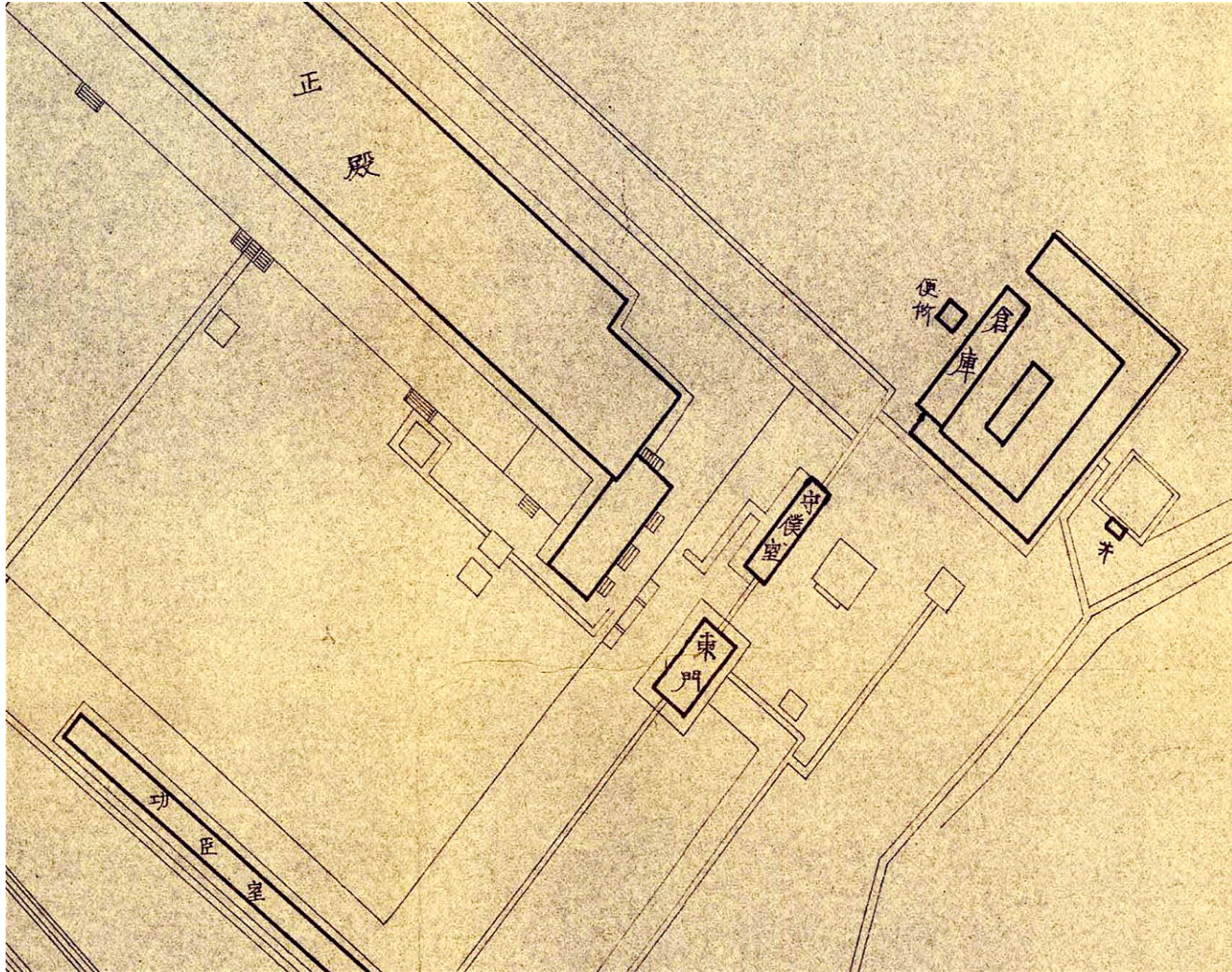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종묘배치도 : 정전 남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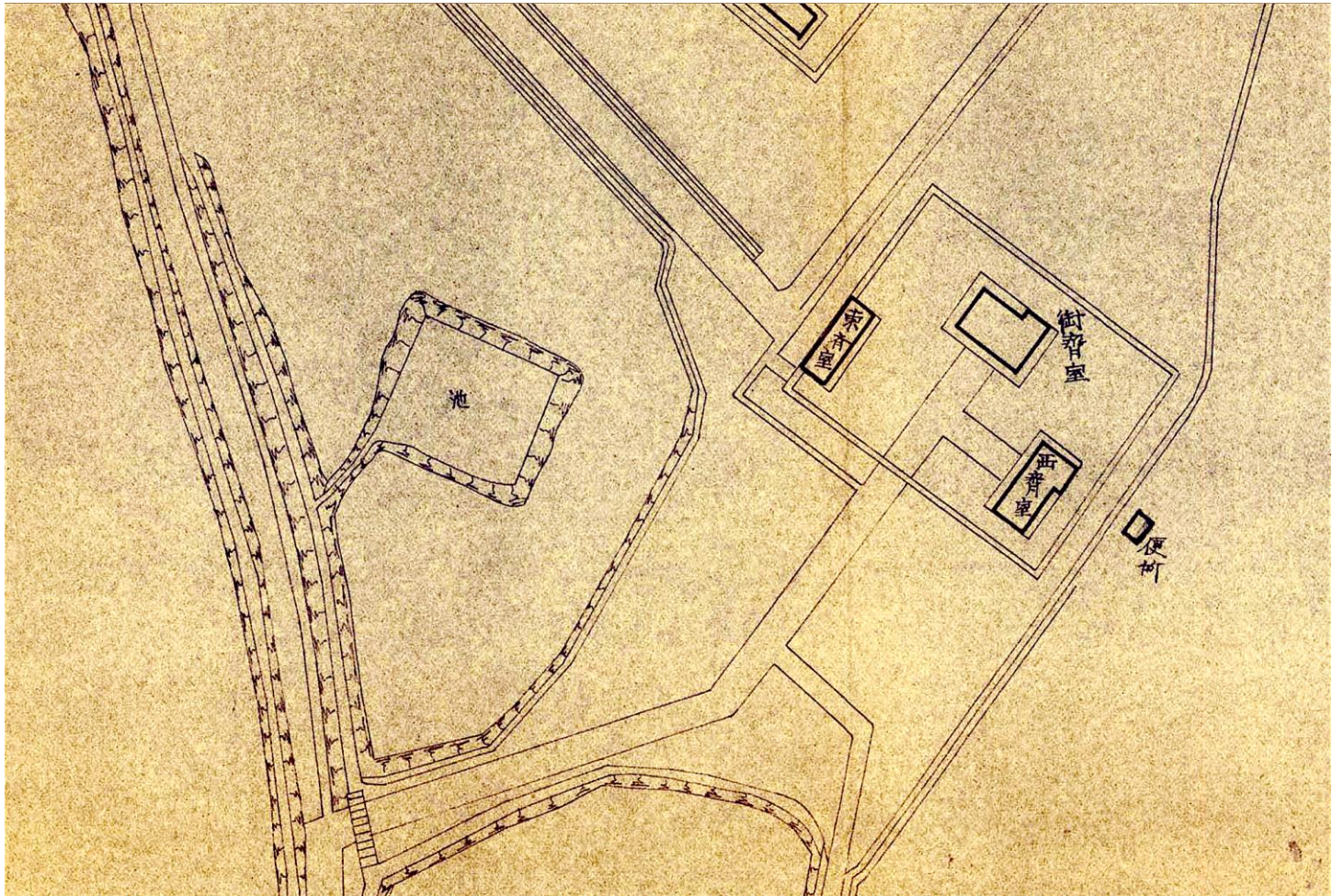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종묘배치도 : 정전 동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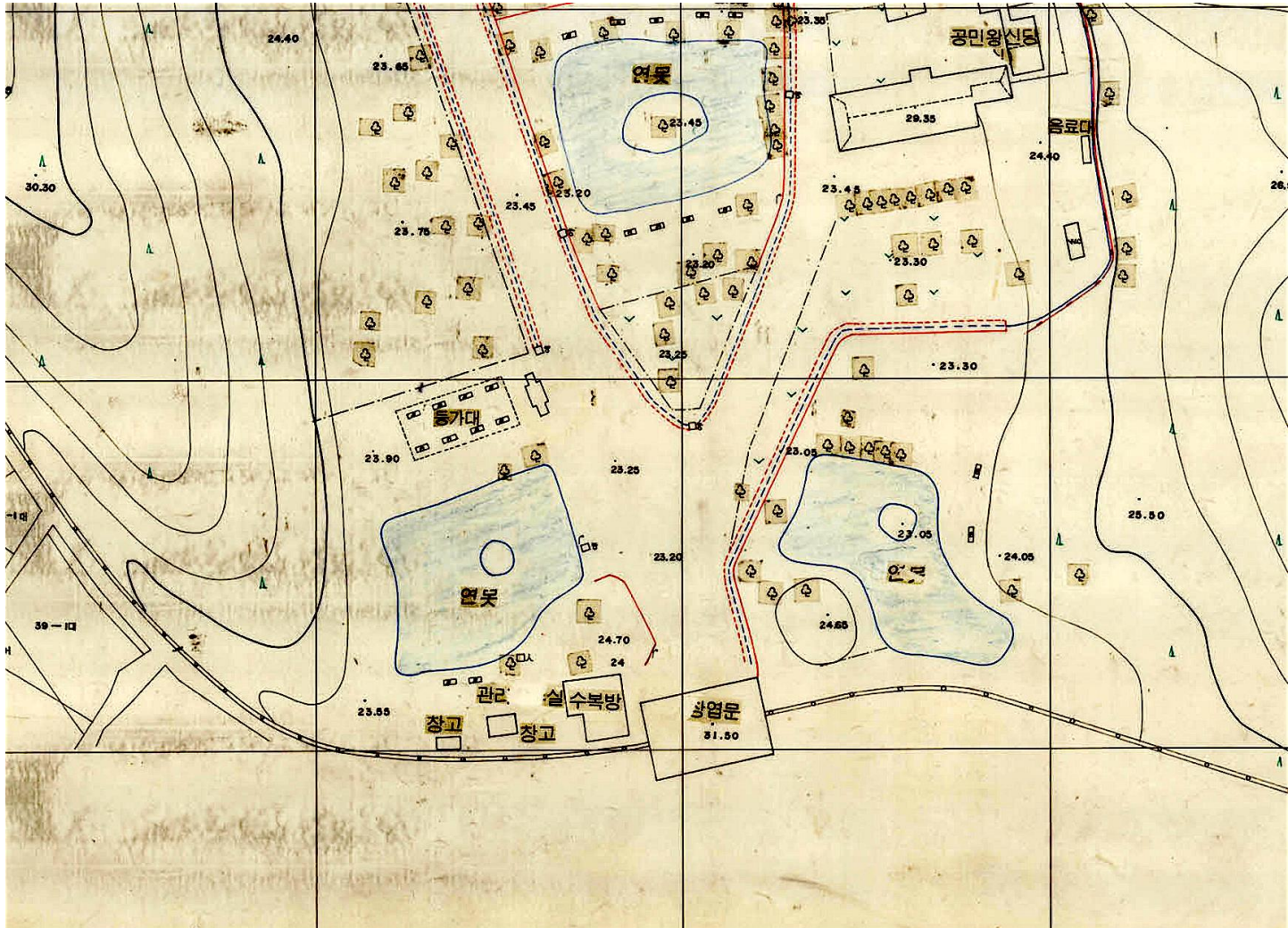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종묘배치도 : 재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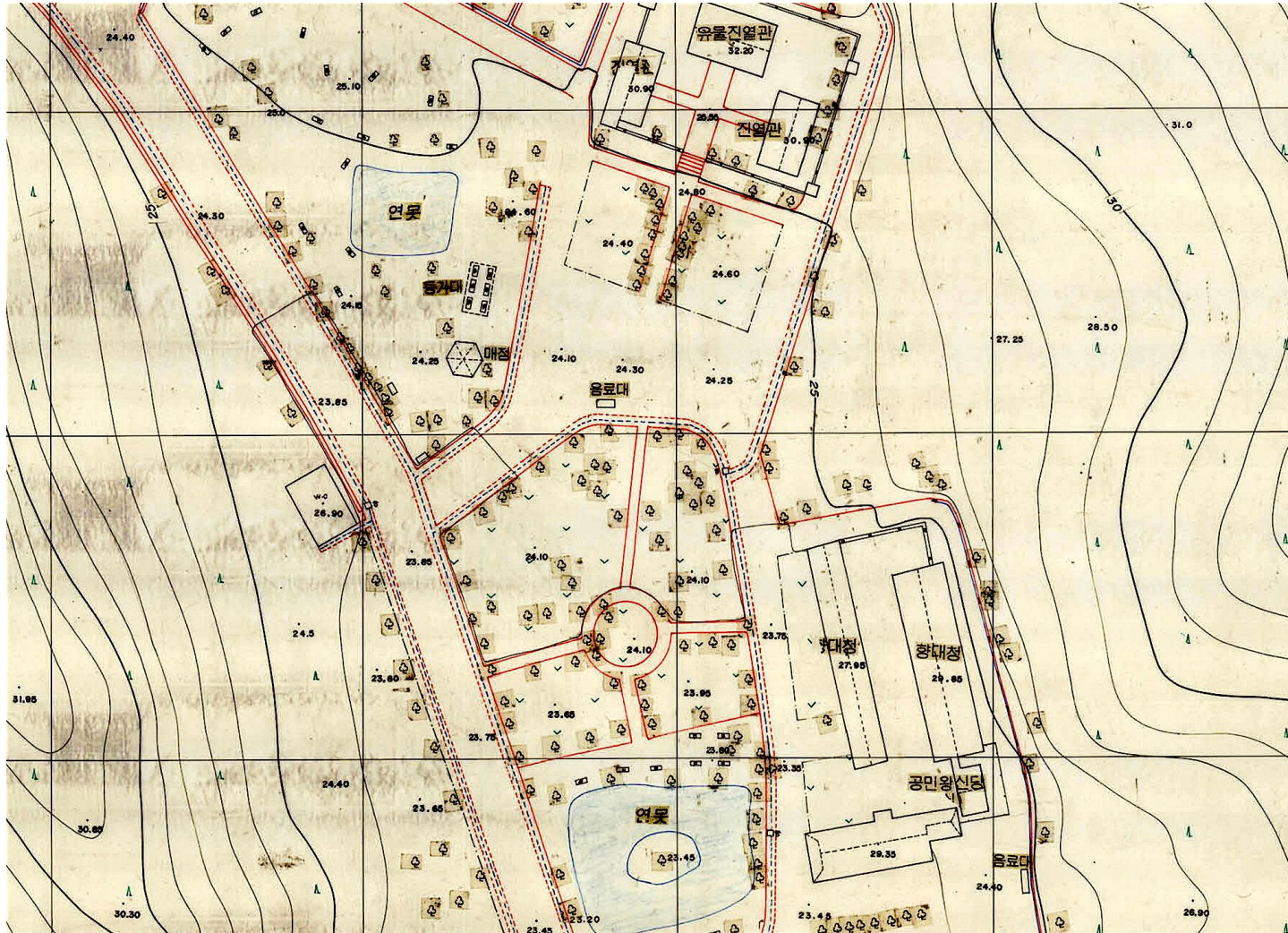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1981 종묘지적도 : 외대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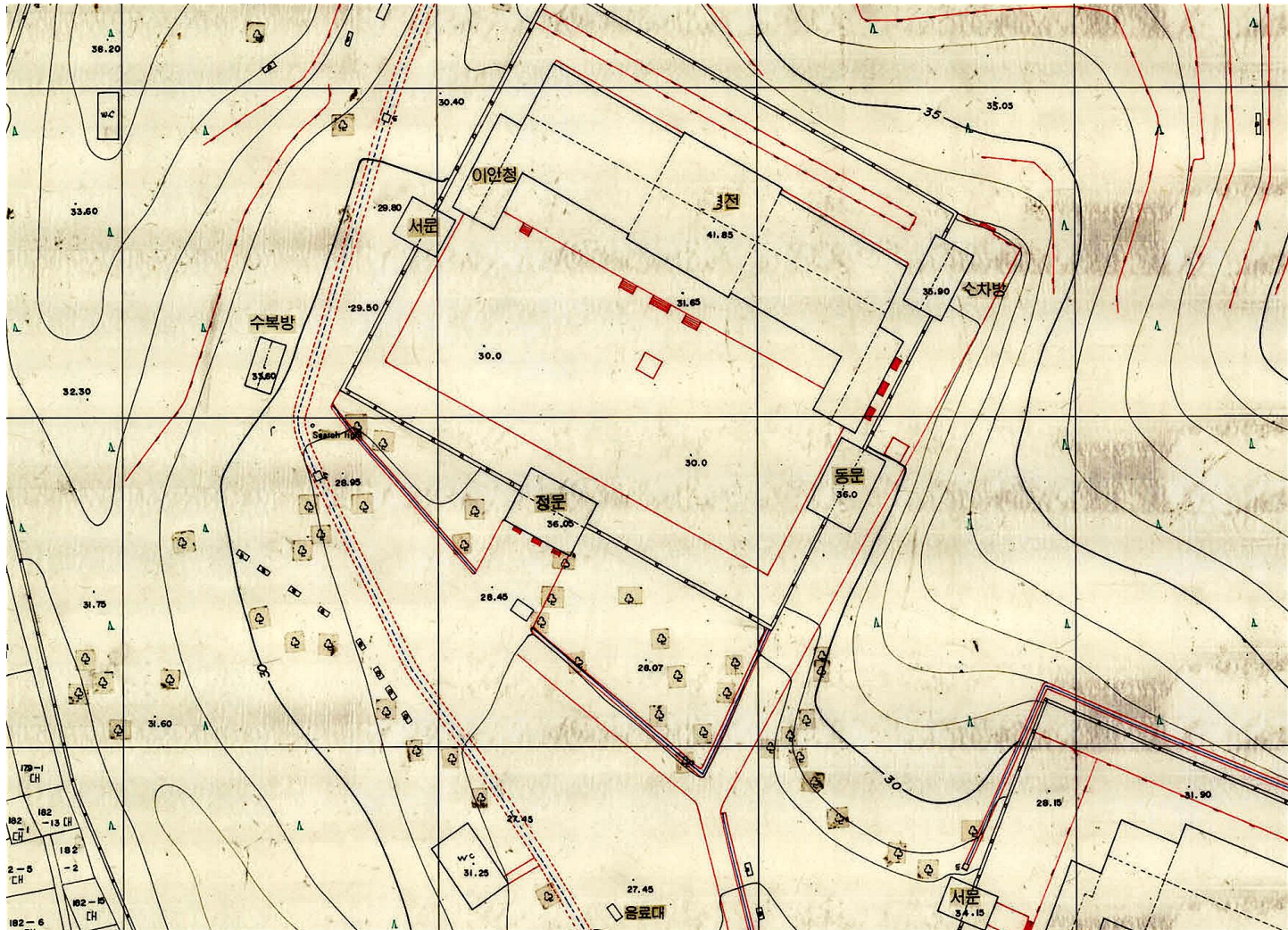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1981 종묘 향대청 재공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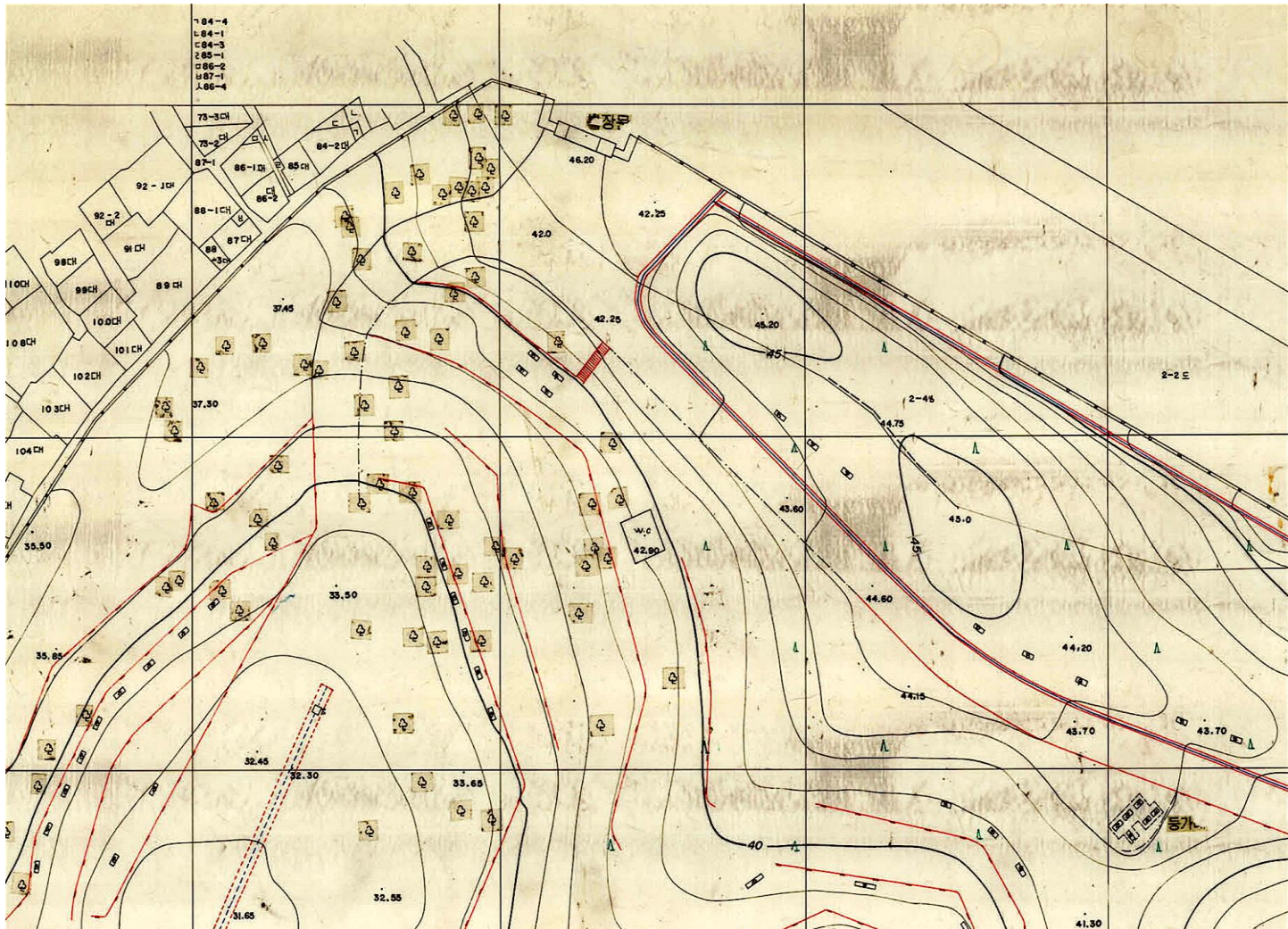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1981 종묘지적도 : 영녕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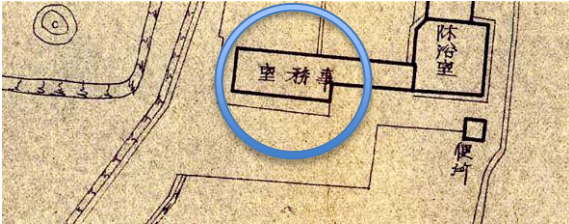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1. 지도로 보는 종묘 (1981 종묘지적도 : 종묘 후면)



2부. 대한민국 종묘

2. 망묘루? 관리사무소?



2부. 대한민국 종묘

2. 망묘루? 관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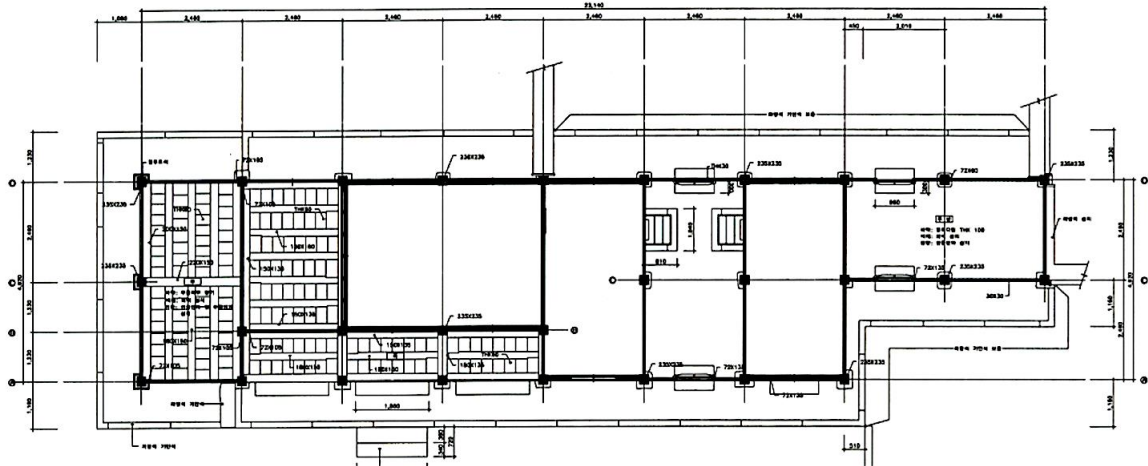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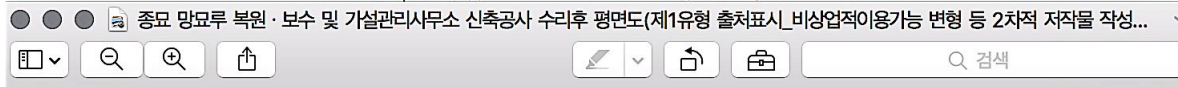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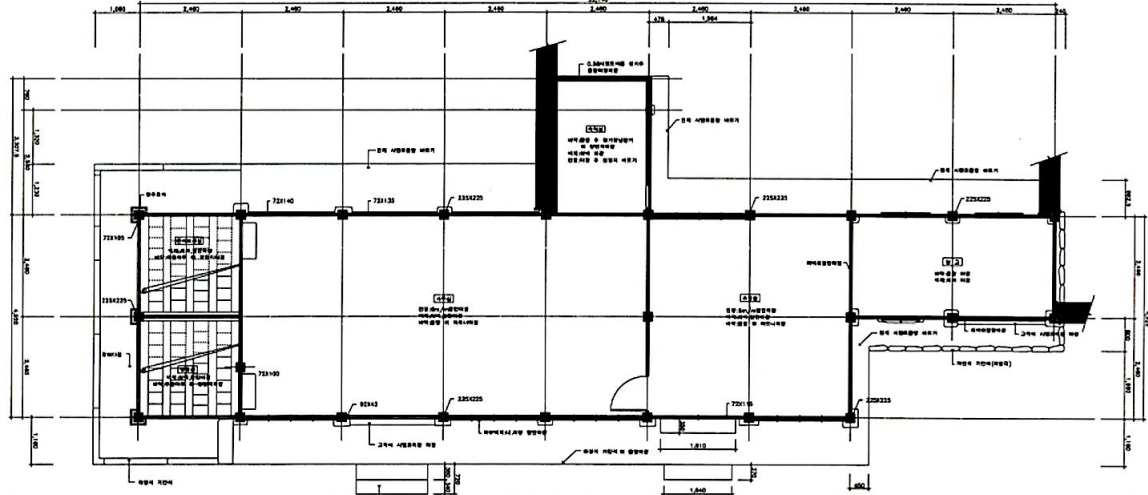
▶ 문화재수리 (3)

문화재명	사업명	시행청	보수기간
종묘 경전 서측실	종묘 경전 서측실 보수공사	문화재청	1999.11.16~2000.12.07
종묘 망묘루	종묘 망묘루 복원·보수 및 가설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문화재청	2000.04.25~2000.12.10
종묘 향대청	종묘 향대청 보수공사	문화재청	2004.09.02~2004.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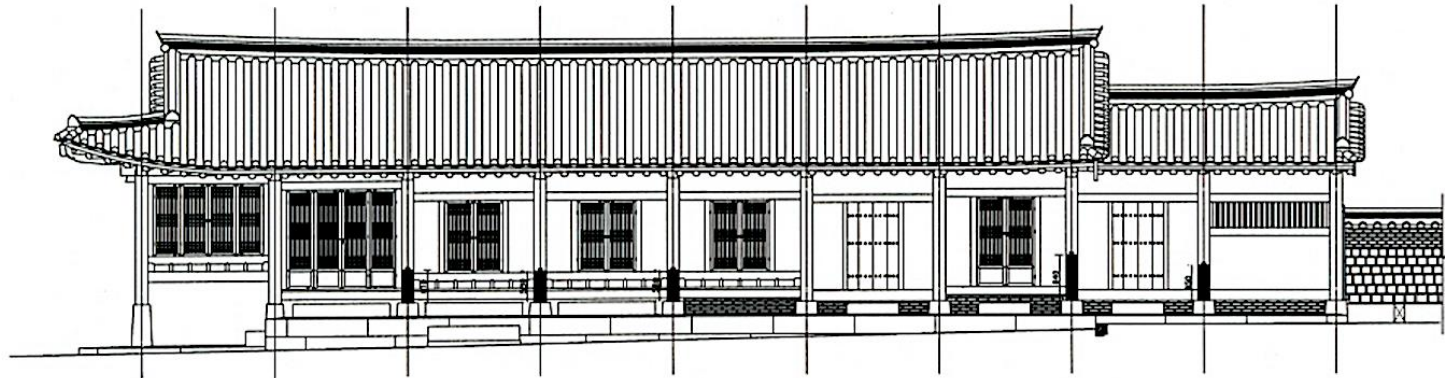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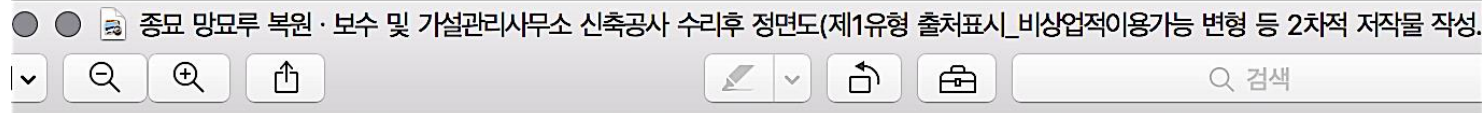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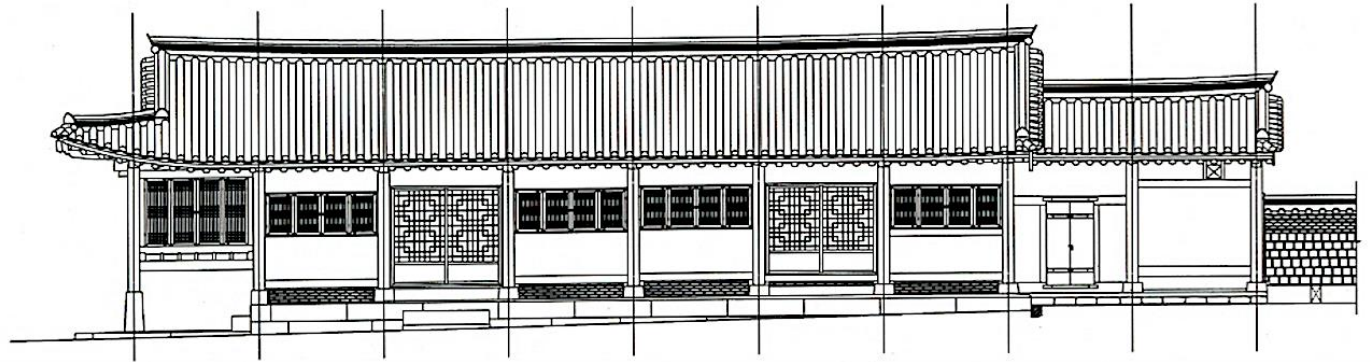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2. 망묘루? 관리사무소?



2부. 대한민국 종묘

2. 망묘루? 관리사무소?



2부. 대한민국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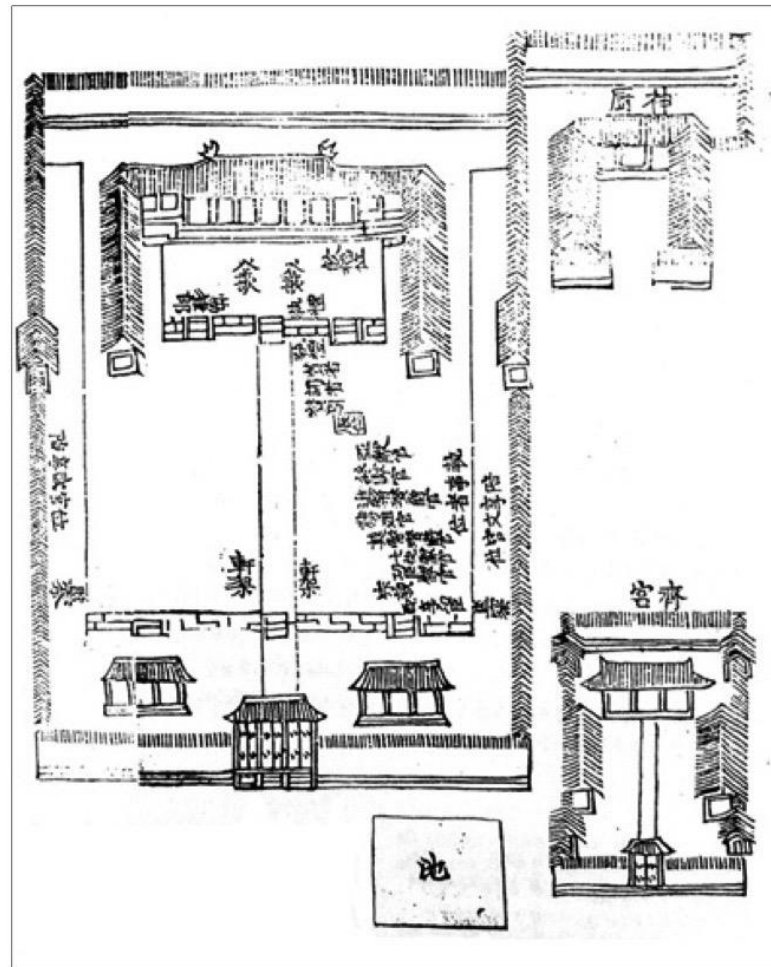
3. 공민왕신당의 정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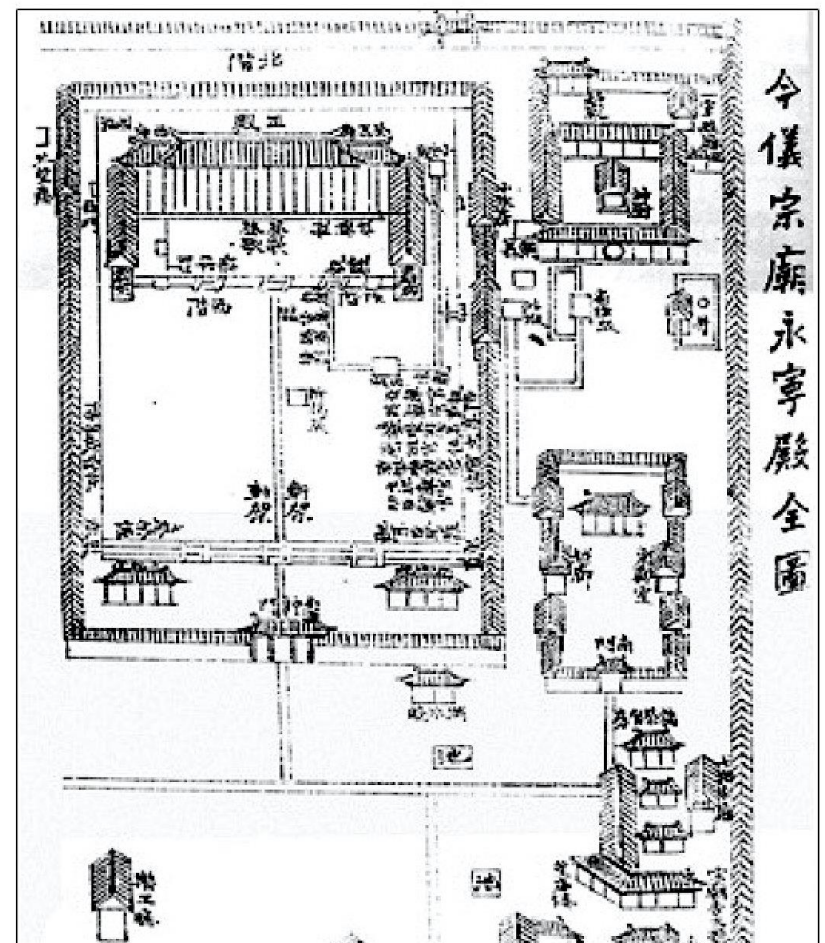
2부. 대한민국 종묘

4. 종묘 지당은 천원지방?

[그림 25] 『국조오례의 서례』 성종5년 (1474) 종묘 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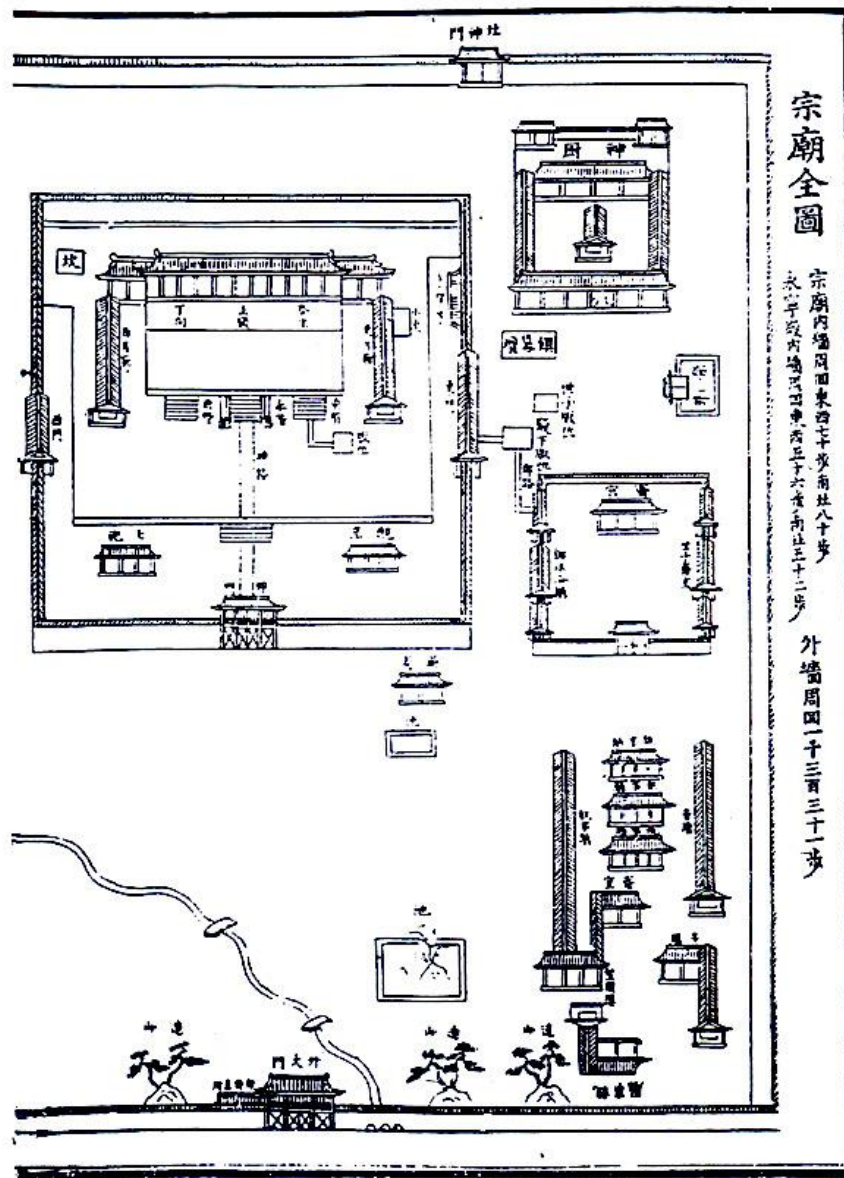


[그림 27] 『춘관통보』 종묘 정전



2부. 대한민국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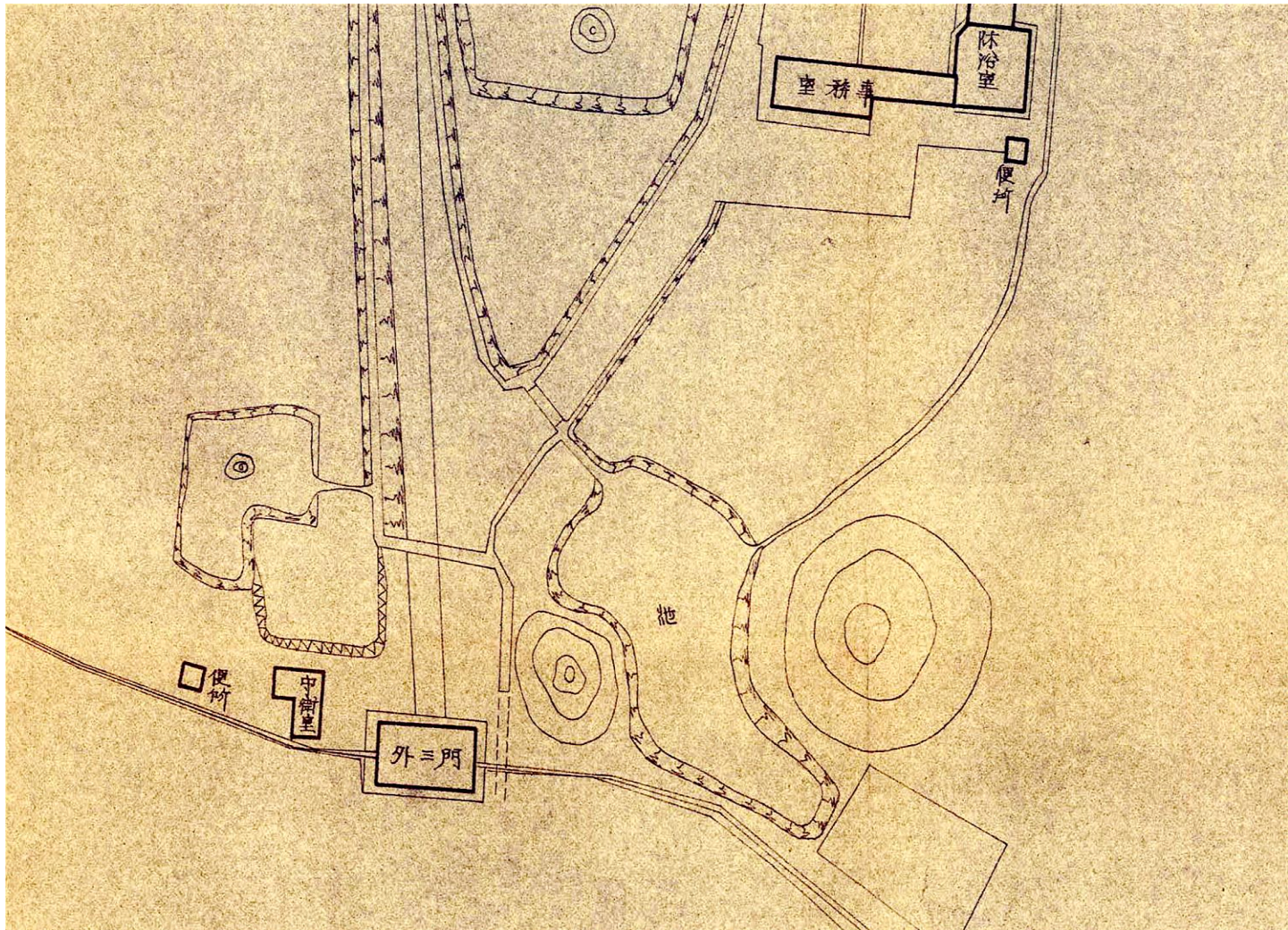
4. 종묘 지당은 천원지방?



17世紀 再建時的 宗廟(『宗廟儀軌』肅宗 23年刊에서)

2부. 대한민국 종묘

4. 종묘 지당은 천원지방? (종묘배치도 : 외대문 영역)







종묘의 힘은 **지속가능성**이다.